

2013

가 (Thanksgiving Day) 가

.1600

가 가

가 (Thanks-giving) 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감사 (gratitude)의 효과를 연구해온 로버트 에먼스는 그의 연구 (2007)를 통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리스트를 써 보는 것,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등이 모든 종류의 감사에는 우리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유익한 효과가 있으며, 누군가에게 직접 표현하는 감사는 감사를 받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감사의 힘은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됨에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감사의 행위로 인해 나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감사의 시작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행동과 태도 또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4 >

# 주님! 감사합시다



| 본지 발행인

깊어가는 가을 밤,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보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리나라.

처절한 전와(戰禍)로 인하여 줄지에 부모와 고향을 잃고  
이 소용돌이치는 지구상에 나 혼자뿐인 인생으로  
앞이 안 보이는 미로에서 탄식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세월  
고독을 씹으며 외로움을 이기려 친 몸부림이  
나의 믿음을 영글게 하는 연단이였기에 감사합니다.  
남달리 연약한 몸이기에 내 힘으로는 못 살 줄 알아  
전능하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어 허기진 배를 즐라매고  
주님! 나도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쓰러지던 젊은 날을 회고하며  
오늘 풍성한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씹는 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주님! 더욱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의 신앙고백이다.  
신앙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우리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감사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자.  
감사하는 자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감사합니다.  
그대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그것은 아침 첫 마디 기도이어라  
감사! 그것은 성도의 하루를 사는 삶의 고백이어라  
감사! 그것은 성도의 마지막 찬양이어라

금년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그것만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는 비결이다.

주님! 나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소서.



2



3



4



7

( )

가, !

(ICSK )

# 김성국 목사 위임예배

담임목사 위임



김성국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퀸즈장로교회에서는 3대 담임 김성국 목사님의  
위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이 복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주후 2013년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퀸즈장로교회 본당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전화(718)886-4040 FAX(718)358-7789

원로 장영춘 목사 및 교우일동



# 감사절 설교

##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 2:6-7)



( )

은혜스러운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일생동안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을 허락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베풀어주시는 편에 계시며, 인간은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인 줄 알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별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불평 불만 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특별대우하지 않고 적당히 대한다는 것 또한 푸대접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기쁨의 인식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요, 쓸모 없는 자식이요, 인생의 가치를 잃어 버린 자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당장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죄의 체험이 분명할 때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저주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리에 들어가 드리는 감사야말로 감사 생활의 절정이요, 결정적인 참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쁨은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클수록 감사의 농도는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대신 불평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설 때는 어려움 중에서도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아놓고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더 받고 받아도 끝이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매질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굶주리게 하는 자들을 때려 부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수한 고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죄의 체험이 분명할 때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저주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리에 들어가 드리는 감사야말로 감사 생활의 절정이요, 결정적인 참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쁨은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클수록 감사의 농도는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에 진정한 감사해 보셨는지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은 진정한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도가 슬픔과 불행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감사를 귀히 보시고 슬픔이나 불행이나 역울함을 복의 조건으로 바꾸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 ( ) (323)665-9025( ) Fax:(323)665-0056 ( ) (323)665-0046( ) E-mail : la@chpress.net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 ) (718)886-4424( ) Fax:(718)886-0074 (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이 되어 시력을 잃게 되었다. 바흐는 당시 유명한 안과사의 희망적인 말을 듣고 그에게 수술을 받았다. 회복을 위한 오랜 시간이 흘러 눈에서 봉대를 풀었을 때 둘러있던 자녀들이 “아버님 무언가 보이세요?” 물었다. 바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얼마나 낙담이 되며 원망스럽겠냐? 그는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그가 1729년에 작곡한 찬송가 145장 3절의 가사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 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흐는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된다. 원망이란, “환절이나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으로 많은 자들이 범하는 죄 중의 하나이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 하는 원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원망(불만)은 습관성으로 한번 원망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게 된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나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갈아 먹게 된다. 좋은 습관은 계속 훈련하거나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원망은 본래 불신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왔으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전염되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왜 원망하게 되는가? 원망의 원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첫째,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찬송을 부른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 통하게 하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진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는 “인간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금번 감사절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계수하여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둘째는,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할 때 원망하게 된다. 우리가 받는 축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흔히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 일이 계속될 때 감격은 상실되어지고 감사를 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 우리도 좋아하는 환경에 익숙하다보면 그 좋은 환경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과 감동을 주며 산 자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서도 감사치 못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물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만 채로 살도록,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로 살도록,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병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감사를 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원망하게 된다. 강철왕 카네기는 28세까지 세일즈맨이었다.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직 저직 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때로는 문전 박대를 받으며 때로는 실의에 빠져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하고, 그 집 벽에 걸린 그림을 보았다. 넓은 해변가 모래언덕에 낡은 배 한 척이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밀물 때가 있음을 생각하라”고 쓰여 있었다. 이 글귀에 카네기는 용기를 얻어 노인에게 부탁하기를 “노인께서 언젠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저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카네기에게 “집주소를 적어 놓고 가라”고 하였다.

<3 >

감사는 사람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신앙과 감사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 없는 생활은 비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은 양심과 언어를 소유한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복 받은 성도만이 가지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이미 소유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성도와 감사의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성의 소유한 인격자인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요, 만물의 영장인 영적 존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요, 감사의 신앙의 표현이요, 복의 열매요, 천국 생활의 상징입니다. 천국에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하고 감사의 내용을 찾는 사람은 벌써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발견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 1. 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다 같이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으로 옮겨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로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로 남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말로 남에게 힘을 돋우어주기도 하고, 말로 남의 상처와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 성경(신약)완독성회

신약 27 권을 하루(12 시간)에 통독 하는 폭포수 같은 은혜와 감격을 체험 하게 될 것 입니다.



**강사소개:**  
미주 요한선교단 대표  
시카고 남서부 교회 원로목사

**강사:** 안성기 목사  
**시간:** 2013 / 11 / 22-23(금,토)  
**장소:** WEC Intl. Castle Lounge  
**준비물:** 성경(개역), 찬송가

\* 참석하시는 모든분들께 식사 및 다과 제공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요:1: 14

**22 일** 10:00am - 5:00pm 등록(무료), 및 성경통독, 암송, T-QT 세미나  
**23 일** 8:00am - 9:30pm 성경완독

기타문의: 조혜선 선교사 (215)868-8913



## WEC International USA

709 Pennsylvania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 wec-usa.org / 215-646-2322



**WEC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CT

가

16

(AB1266 )

(Christianity Today)

(T. C. Morgan)

가

(Why Welcome

a Same-Sex Couple to Church?: How congregations can reach out to people with same-sex attraction and remain committed to biblical human sexuality).

주일 아침, 동성애자 부부의 요구에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이 교회 속한 교단이나 신학 전통에 따라 예상될 수 있다:

- 1.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진보주의 교회를 소개해 준다.
- 2. 일단 레이첼을 여성성경학교에 등록해준 다음, 부부에게는 따라 나타성경교회의 신앙고백을 건넨다. 그 신앙고백에는 동성애 행위는 정죄를 받는다는 항목도 들어 있다.
- 3. 등록을 진행하면서 법적 부부인 두 사람에게서 목사님을 만나 세례와 교인 등록을 의논하게끔 유도한다.
- 4.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

최근 미네소타 주와 로드아일랜드 주가 미국에서 각각 열두 번째와 열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6월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호의적 판결에 따라,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법적 혼인관계나 시민결합(civil union) 상태인 동성부부가 이미 1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주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동성부부를 포함하는 가정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네 번째 선택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동성부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느끼는 혼란을 잘 대변해주는 듯하다.

결혼은 이성 간에 하는 것이라 믿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물을 베푸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교회들이 따를 만한 성경적 접근법이나 모델이 과연 있는가? 이미 1990년대부터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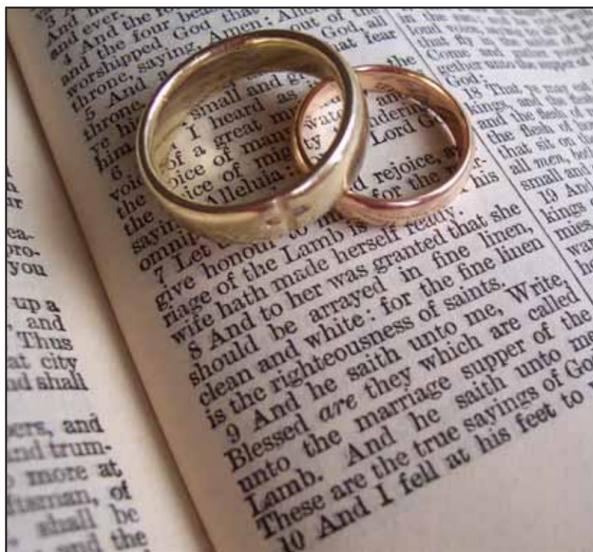
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하지는 않아도 환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병(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공개 정죄, 동성애 혐오증,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치료기법을 통한 행동 변화 강요 등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압도할 때가 많았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예배 장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성 소수자(LGBT)는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 이하로 나타났다.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들도 지난 12개월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자들은 환영받았다고 느끼지만 대다수 성소수자 응답자들은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 등 주요 종교 집단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적 은혜와 진리에 뿌리를 둔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교회들이 새로운 태도를 보이면 동성애 성향의 개인이나 부부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전구를 갈아 끼우



는 일처럼 손쉽게 생각할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일까? 성경적 믿음과 실천은 극단적 상황에서 드러난다. 동성부부 관련 테스트는 교회 안팎에서 함께 치러진다.

이 테스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동성부부들과 신뢰

그들을 환영하는 것 역시 진실한 환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어느 누구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생활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작년 12월에 CT가 보도했듯이,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동성애 성향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 비밀

토론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학교생활과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 본부를 둔 국제사역기구 '리드라이브스'(Redeemed Lives)는 목회 지도자들이 지역 교회에서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 사역은 자신들의 사명선언문에서 (치료기법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선포자 마리오 버그너는 성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동성애 성향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또 다른 예로, 영국 캔터베리의 성공회 목회자이자 블로거인 피터 울드는 자신을 '포스트게이'(postgay)로 소개한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은 인정하지만 그 성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구실로 동성애 행위에 가담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 동성애자, 교회(God, Gays, and the Church)"에서 자신의 사역은 교회가 "성 정체성이 깨진 사람들에게 공물을 베풀고 그들을 보살피는 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감 형성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수치심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공통된 열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자인 블로거 이브 터시넷은 깨지고 치유되고 상처 입은 상태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 깊이 이해해달라고 요청한다. 2011년에 그녀는 이런 글을 썼다. "상처 입었다는 이미지는 '어떤 사람의 성 정체성을 '깨졌다'고 묘사하는 것보다' 더 오묘한 느낌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상처는 치유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영광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교회생활에서 동성애부부를 포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물론 교인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목적, 신앙고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됐든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행위와 리더십의 기준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고 분명하고 공평해야 한다. 오스틴주 게이트웨이교회 존 버크 담임목사는 다음 같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게이트

지도자들에게 조금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 교회에는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변화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원하는 만큼 빨리 그 말씀을 알아차릴까요?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시간과 방법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성 정체성을 고수하는 교회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 기도와 치유 사역에 크게 헌신한다. 이런 사역들이 나머지 교인들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예배와 연결되었다.
- 미봉책이나 만병통치 처방을 피하고, 성적 학대를 극복한 사람들, 동성애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혼란해하는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계를 맺으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 자신의 망가진 성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할 의사가 있으며, 자신들이 바라는 변화수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
-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 상담이 가능한 그리스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해 동성애를 악마로 묘사하거나 혐오하는 용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결론으로, 교회가 문을 열어젖히면 죄로 병든 영혼들이 몰려들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인간의 성에 대한 기독교의 비전이 정절과 순결과 금욕이라는 메시지에 담겨 강단에서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갈 때, 우리를 손상시키는 망가진 성은 그 힘을 잃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은 정체성, 하나님과 이웃과 평생 함께하는 관계에 맞을 내린 정체성으로 초청하기 때문이다.

다. 아무리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자. 사역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역에 열매가 별로 없어도, 지금의 힘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밀물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자. 답답한 오늘이지만 그 다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고통스런 환경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다.

## 기도 치유 사역에 크게 헌신 · 기독교상담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미봉책 · 만병통치 처방회피, 꾸준한 관계 맺으며 해결책 모색

웨이교회는 성경적 성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그냥 용납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자비와 관대함을 베푼다.

유명 작가이자 텍사스 오코힐교회 담임했던 맥스 루케이도는 2012년 CT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얼마 후에 그 그림이 카네기에게 배달되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받고는 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고 성공의 비결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실이 어렵고 암담해도 밀물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썰물의 때이다. 배는 모래사장 위에 처박혀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밀물이 물러오면 그 배는 항해하게 될 것이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TVNG, TVNEXT.org)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헌법인 DOMA(Defense of Marriage 남녀와의 결혼만 인정하는 헌법)를 대법원에서 지난 6월에 폐지시킨 이후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거센 세력과 절실하게 반대하는 세력의 팽팽한 전쟁이 미국 전역으로 더 치열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8일에는 하와이 하원

다른 혼돈스럽고 다음세대들을 목 표삼은 두 가지의 법안들이 통과 되었습니다.

4, 2?(SB274) & !(AB154)

SB274의 이름은 Family law: Parentage: Child Custody and Support라고 하는데, 이 법안은 지난 10월에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이 진정 필요하고 유지한지, 불 필요하고 불유익한 지에 대한 찬 반의 논쟁은 몇 주가 지난 지금도 깊어지기만 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친 엄마와 친아빠 외에, 양아빠와 계 이아빠까지 갑자기 세 명의 아빠 와 엄마가 생긴다는 의미이지요.

이 법안을 제출한 Mark Leno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가정/가족 변 호사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과 결정권을 더해줌으로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 여러 부모들을 붙여 줌으로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해주 게 하는 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캘 리포니아의 기독교 단체들 중 잘 알려진 Pacific Justice의 Brad Dacus는 "이 법안은 아이들의 선

년 동안 계속 친동성에 운동을 활 발히 펼치며, 동성애자들을 보호 하기위한 법안들을 끊임없이 만들 고 후원해왔습니다. 그는 2012년 에 SB274 와 매우 흡사한 SB1476 을 제출하였지만, 그때는 통과 못 시키고, 2013년에 다시 법명만 바 꾸어 SB274를 만들어 제출하고 다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친동성 애 정치인들과 서로 힘을 협력하 여 결국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Jerry Brown이 쉽게 서명함으로 이 법안은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는 펜실 배니아, 메인, 델라웨어 그리고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에서 아이

### SB274: 아빠 4명, 엄마 2명?...어린자녀들 가치관 혼돈 시켜 AB154: 정식 의사 아니라도 낙태 가능, 산모 건강 신경 안써

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 고, 일리노이 주 또한 지난 5일에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주지사 Pat Quinn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지사인 Neil Abercrombie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요.

어디가 먼저 15번째 또는 16번째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와이 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에서 계시 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아직도 넘어가지 않은 35개의 주(State)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냥 치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은 늘 있었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 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 는 자들을 통해 여리고성도 무너 뜨리고, 수많은 치열한 전쟁에서 도 이기게 하셨으니까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만 그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군사 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에 또

이 법안은 아이들이 "두 부모 (more than two parents) 이상" 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입니 다. 법적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들 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 와 친아 빠 외에도 "동시에" 여러 부모들 을(양부모, 동성애부모, 보호자 등)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 을 허락하는 법안인데, 그냥 들어보면 좀 진보주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미 한부모 이상 가진 아이들이 많은데..." 또는, "만일 친부모들이 자녀를 돌봐 줄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친부모가 되는 자격을 얻어서 정부에서 도움도 받아가면서 아이 들을 돌봐주는 것이 더 아이들에 게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른 부모 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좋은 부모 가 되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 니라, 친부모, 양부모, 동성애 부모 등, 이 모든 부모들이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부모" 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친부모가 이혼을 한 후, 친아빠가 이혼한 동성애 계 이와 만나게 되었고, 엄마는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는데, 그 어른/부 모들이 모두 법적으로 한 아이의 부모권 또는 보호자임을 SB274에 의해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법원에 있는 법관, 변호사들에게

택과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 이 있는 것보다는 가정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변호사들만 돈 을 더 많이 벌게 되며 가정문제로 이미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돈과 혼란,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하는 등 가정적으 로 사회적으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법안" 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캘리포니 아에 기존하고 있는 법에 의해 아이 나 Foster Care같은 프로그램 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 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부모(엄마, 아빠)이든 양부모(엄마, 아빠)이든, 또는 "보호자"이 든, 이미 기존되어있는 법에 의해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한 부모" 또는 "한 보호자"가 책임지 고 아이들의 양육과 성장을 도우 며, 그 주위의 가족들이 돕는시스 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무 엇보다도 한부모의 건강한 자녀양 육아에서 자라고 성장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관, 결혼관, 사회관을 갖게 된다는 보고서들도 있고요.

이 법안을 만들고 제출한 Mark Leno는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호 전적인(assertive) 동성애 운동가 이자 정치자이며, 무엇보다도 지 난번 SB48을 만들어 제출했었던 샌프란시스코를 맡은 상원의원입 니다. 그 외에도 Mark Leno는 몇

들이 두 부모이상 갖는 것을 인정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B154가 한달반 전에 통 과되었습니다. AB154는 민주당의 Toni Atkins(샌디에고) 가 만들어 제출한 법안으로서 낙태시술을 가 장 많이 하고 있는 Planned Paren thood가 강력하게 지지해준 법안입니다.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히 지지한 이유는 이 법안을 통해 정식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 호사나 산과 또는 간호사 도우미 들까지도 낙태를 해줄 수 있게 하 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낙태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법안은 아기를 낙태하는 것에 초 점을 두고 낙태하는 엄마의 건강 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아기를 낳아 본 엄마들은 알다시피 정식 의사 가 아닌 간호사나 도우미들이 아 기를 낙태하게 되면 엄마의 건강 에 훨씬 해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 일 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까리만 이 영적전쟁을 알고 치를 것이 아니라 저희 주위에 다른 주 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알려 그 들 또한 이런 영적 싸움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Q&A 신앙상담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가

A: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온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워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즉 유대인의 "완고한 교만과 아집"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며 소위 자기들의 행위의 의를 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즉 무상으로 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의 잔을 옮겨 유대인에게서 이

가

방인에게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롬10: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키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이방인에게 복을 베푸셔서 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 복음의 풍요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키나게 하고 노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롬11:25-26절처럼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마지막은 유대민족들이 회개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 적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랍비들은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정통과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알 테슈바(Baal Teshuvah)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는 회개의 주인이란 뜻인데 정통과 유대교에서의 회개는 "랍비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셔 음식법 지키기(레11장), 테필린 성구상자 달기(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팔에 붙이는 작고 검은 상자로서 그 안에 양피지에 쓰인 신명기 6장의 쉘마를 낭송하는 것) 안식일 준수 등입니다. 전통적 유대인의 생활방식으로 돌아온 사람을 그들은 회개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즉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정통과 유대인 생활로 돌아오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현재 믿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니나미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오신다." 아직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대전 개스실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역사의 종말의 시점에 이르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심각하게 깨우쳐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오는 것 같은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구나. 2천년전에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돌같이 강박했던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우리도 예수 믿자" 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 입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의 결정적 징조입니다.

### <초교파>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2기 세미나

####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저 하는모임
- 영적힘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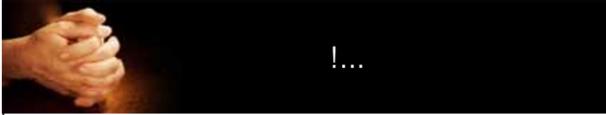
####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구제 활동
- 4차원 영성 상조회 가입

일 시: 2013년 11월 23일(토) 오전 9시~12시30분  
장 소: 플러튼 하워드잔슨호텔 컨벤션센터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참 가 비: 30불(점심식사포함)  
신청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문 의]  
회 장 석중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사무국 장 박정기 목사 213-327-8095  
아프리카지역회장 전제이슨 선교사 714-904-3450

##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 (SOUTH CENTRAL GOND)



의 산림지역과 고지대에 남부 중앙 곤드족이 살고 있다. 주로 찬드라 푸, 아달라바드, 갈치틀리에 집중

인도 고다바리강의 북 지역인 마하라슈트라와 안드라프라데시

인도 고다바리강의 북 지역인 마하라슈트라와 안드라프라데시의 산림지역과 고지대에 남부 중앙 곤드족이 살고 있다. 주로 찬드라 푸, 아달라바드, 갈치틀리에 집중

되었다. 곤드족의 언어와 문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전의 지배자이기도 하고 현재는 그들의 이웃이기도한 텔루구족과 마라타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오늘날에도 곤드족은 고유 부족어만큼 유창하게 텔루구어와 마라타어를 구사할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곤드족은 인도 소수민족 중 가장 중요한 민족이었다. 힌두교를 이념으로 설립된 곤드왕조는 1592년 이슬람 군대에 의해 침략 당했으며 17세기 마라타

왕조에 의해 멸망하면서 지배자를 피해 숲속 깊숙이 숨어들어갔다. 오늘날 곤드족의 빈곤과 교육의 부족은 곤드족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곤드족은 화전식 농업과 유목을 겸하며 살고 있다. 2-3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고 자신들이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새로운 땅을 개간한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농부들이 수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화전법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 그들은 더욱 깊은 오지로 이주했다. 농부들이 농기계를 사용해 작물을 경작하면서 생산량이 늘었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도 개선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소수민족은 이러한 변화에 대

해서 강하게 거부한다.

남부 중앙 곤드족의 대부분은 농업과 수렵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열대과일을 섭취한다. 그들 중 일부는 사육된 가축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또 일부는 도로건설과 같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아 살기도 한다. 남부 중앙 곤드족은 의복이나 장신구를 만들지 않고 이웃 부족을 통해 사들인다. 시장은 여러 소수부족들이 사육한 가축을 내다 팔거나 의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물품 따위를 구입하는 곳이다. 남부 중앙 곤드족의 부락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이다. 부족은 족장이 지도하며 연장자 그룹의 의견을 따른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족장의 판단은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연장자는 마을 내에서 규율적으로 우월한 권위를 누린다. 곤드족의 사회는 남성우위의 가

부장제 제도의 사회이며 남성 중심의 혈통을 계승해 내려오는 씨족사회이기도 하다. 근친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친 외 결혼을 통해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모든 부족원은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다.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자유는 부족공동체의 자유를 위해 제한을 받는다. 자유, 평등, 혈연주의는 부족의 중요한 이념이다.

곤드족의 60%가 많은 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힌두교도들이다. 나머지 40%는 애니미스트들이다. 그들은 울창한 숲속에 신들과 조상들의 혼령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조상 신들에게 축복과 보호하심을 기원하는 규칙적인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또한 비나 강물에 몸을 담그면 수산물과 농작물이 풍년이 들어 풍

요해진다고 믿는다. 소, 염소, 새들과 같은 동물을 돌보면 자연의 혼령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다. 남부 중앙 곤드족의 신 가운데 "deur"신은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는다. 하늘위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deur"신은 뚜렷한 형태가 없고 꿈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남부 중앙 곤드족을 향한 여섯 가지의 선교이념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영화 상영과 곤드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중 하나다. 그러나 남부 중앙 곤드족 가운데 성도의 수는 35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향한 전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Internet News

표가 모자라 통과에 실패했고 2007년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미국 상원은 7일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직장 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용차별금지법안'(ENDA ·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64표와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52명과 공화당 10명,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의원은 "오늘 가결 처리로 인해 상원은 직장내 차별을 종식시켰다"면서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압박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는 누구도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직장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직장 내에서 이런 차별을 끝내야 할 때"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베이너 의장측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하층은 소송으로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NDA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에게는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이 폐기된 2010년 이후 가장 포괄적인 동성애 권리 보호 법안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이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994년 이후 거의 모든 회기마다 상·하원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1996년에는 상원에서 한

영국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입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와 입양정보제공단체 '퍼스트포어업션(First4Adoption)'이 공동 조사한 이번 연구에서, 아이들을 입양할 것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사람들 중 55% 이상이 스스로를 '종교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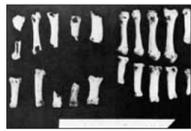


퍼스트포어업션은 영국에 약 4,600명의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입양률은 최근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조사 결과 입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적극적인 신앙인일수록,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무엇인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입양을 통해 제공되는 감정적인 유익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퍼스트포어업션과 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의 '홈포굿(Home for Good)' 캠페인은 신앙 공동체를 위한 입양정보라인을 함께 구축하고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교회에서 첫 번째 전국입양주일을 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적극적인 신앙을 지닌 이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자신은 입양에 합당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부는 그들의 나이와 결혼 상태가 입양의 불가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바티칸이 사도 성 베드로의 유골을 포함한 유물들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베드로의 유골 공개 행사는 전임 교황인 베네딕

토 16세가 선포했던 '신앙의 해'의 마지막 절정이 될 것이라고 바티칸 평의회 회장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바티칸 일간 신문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고 스위스 일간 '20 미닛'이 12일 보도했다.



피시첼라 대주교는 유골 공개 행사는 현대인들에게 최초의 기독교인에 대한 감동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마련된 것이며 공개행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시첼라 대주교는 어떤 유물들이 전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사도 시대의 전통을 알 수 있는 유골'이라고만 표현했다. 아직 과학적으로 이 유골이 사도 베드로의 것인지의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바티칸 바실리카 성당 지하에 있는 성 베드로의 동굴 무덤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발굴은 지난 1940년 여름 교황 비오 12세의 명령에 의해 시작됐고 고고학자들은 사도 베드로의 매장지에 대한 고대 순례자들의 낙서나 초기 기록물 등에 맞춰 유물들을 정리했다. 당시 이 무덤에서 찾은 유물 중 어디까지를 사도 베드로의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베드로는 서기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으며 현재 바실리카 성당의 지하에 묻힌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최근 초대형 태풍 하이엔이 강타한 필리핀의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이 항공모함을 현장에 급파하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지원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복구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 현장에 항모 조지워싱턴 호를 급파,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필리핀 매체들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홍콩에 정박 중인 조지워싱턴 호는 곧바로 필리핀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다.

항모 조지워싱턴은 향후 48-72시간 안에 필리핀에 도착해 의료품 등 각종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지워싱턴 항모전단은 약 5천명

의 병력과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함재기 80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은 전날 C-130 수송기를 동원해 레이테섬의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식수 등을 긴급 공수한 데 이어 마닐라 등의 빌라모르 공군기지에 있는 다른 항공기도 동원하고 있다. 미군은 피해 현장에 발전기와 트럭 등 중장비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필리핀의 복구작업 지원을 위해 2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도 동료 회원국인 필리핀의 피해 복구작업 지원에 나섰다.

레 르영 미 아세안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아세안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며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미 사무총장은 특히 현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주의 재난지원 아세안 조정센터(AHA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AHA센터는 역대 재해감시와 아세안 차원의 신속대응을 조정하는 전담기구로 지난 2011년 창설됐다. AHA센터는 이미 마닐라와 레이테 지역에 일부 인력을 파견, 즉각적인 구호지원에 나서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약 1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레이테 섬 타클로반 지역의 태풍 피해와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아키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동시에 사회복지개발부 등이 운영하는 '긴급대응기금' 11억 페소(270억원)의 집행을 공식 승인했다. 아울러 재난 기금, 비상기금 등에서도 총 187억 페소(4천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복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태풍 하이엔으로 중부 타클로반 지역에서만 1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11일 밤까지 모두 1천774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82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한편 동부 소로소군 주에서는 최대 태풍피해지역인 타클로반과 사마르 지역으로 향하던 구호물자 수송차량이 좌의 반군세력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정부군 대변인은 이날 구호물자 수송차량이 공산 반군 15명의 기습을 받아 교전이 벌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군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정부군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초청합니다

(고)김충일 목사, (고)김옥란 사모의 장녀 엘리자베스양이 임영애 여사의 장남 마이클군과 귀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일일이 초청장을 올려야 마땅한 줄 아오나 지면을 통해 초청하오니 이점 해량하여 주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TH JOYFUL HEARTS WE ASK YOU TO BE PRESENT AT THE CEREMONY UNITING ON SATURDAY, THE TWENTY-FIRST OF DECEMBER TWO THOUSAND AND THIRTEEN AT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HOLLYWOOD

## 임영애 여사의 장남 마이클

(故) 김충일 목사의 장녀 엘리자베스 (故) 김옥란 사모

주례: 김현인 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기도: 박신욱 목사 (미주복음방송 사장)  
축도: 황은영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전 총회장)

일시: 2013년 12월 21일(토) 오후 4시  
장소: First Presbyterian Church  
1760 N. Gower St, Los Angeles CA 90028

\*예식후 피로연이 있겠습니다.

청첩인: 이완구 이진도 김중원 김성훈 김연석 이동창 정문하 장로  
연락처: Solid Rock Church (남가주든든한교회) / Michel & Elizabeth Ki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213)663-4340

# 교역자 청빙

Logos Central Chapel 에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LCC 교회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한인 2세 교회입니다.

- 1. Full-time Education Pastor**  
-교육부 (Pre-K to 12th grades) 사역 전담 및 Children's Ministry (Pre-K to 5th grades) 사역 담당, 영어필수
- 2. Part-time Youth Pastor**  
중고등부 사역 유경험자 및 영어필수
- 3. Part-time Praise & Worship Leader**  
평신도 사역자로 찬양사역에 열정이 있는분

### 교부서류:

1. 영문 이력서 (Resume with personal picture) 1부, 사진포함
2. 영문 신앙고백서 (Personal Statement of Faith) 1부
3. 영문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s) 목회자 1부, 평신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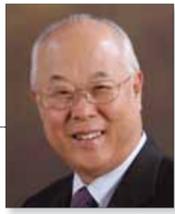
제출방법: e-mail: pyb4jx@gmail.com



5300 E Florida Ave. Denver, CO 80222  
Tel. 720-737-0030, www.logoscentralchapel.org



(7)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Utecht)

카이퍼 목사가 우트레흐트교회의 목사로 청빙 받은 것은 그의 나이 약 30세였다. 우트레흐트중앙교회(Domkerk)는 당대의 걸출한 정통주의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는 또한 카이퍼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카이퍼가 정통주의 신앙으로 자리 매김하는 기회였다. 또한 우트레흐트중앙교회는 국가교회였으니만큼 거대한 제직회가 있었고 열한명의 목사...

주의 성도들은 카이퍼의 설교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 목사는 우트레흐트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어느 지교회에서 설교를 하던지 사람들은 교회당을 가득 메웠다. 이는 잠자던 화란 국교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카이

학과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을 소논문 형식으로 끊임없이 출판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카이퍼의 목회철학은 어떤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과 구성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67년과 1868년

몇몇 사람의 모범적인 삶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구조적 변화 곧 시스템(system)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카이퍼는 개혁주의 교회 원리를 확실히 세우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론을 일으키고 조직화 하면서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를 재건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계 신문에 글을 쓰고 팸플릿을 출판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기존의 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고, 실제적으로 카이퍼의 정책대로 흘러가자 이른바 기독교 세력들은 무척 당황했다. 이 기독교 세력들은 평화주의자였고, 정통 신앙을 가지긴 해도 현실에 안주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카이퍼의 변화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카이퍼 공포증(Kuyper

phobia)을 가졌고, 카이퍼를 총회에 벌집 쑺시는 듯 한다고 해서 방화범(firebrand)이라고 비꼬았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고 선전 포고를 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서 그들조차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적인 칼빈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세계관의 부흥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

카이퍼가 우트레흐트교회 재임 시 국가적 이슈 가운데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당시 교회는 국가교회였지만 교육도 국립교육으로서, 국가가 모든 종교교육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카이퍼는 달랐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칼빈주의적 신앙과 세계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카이퍼 목사는 1869년 5월18일 우트레흐트중앙교회에서 열린 전국총회 전야 메시지를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31세의 젊은 목사의 불같은 메시지에 화란의 위대한 기독교 정치 지도자인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centere)가 완전히 녹아 버렸다. 그는 기독교 역사가, 언론인, 정치인, 전직 수상, 정치지도자, 기독교교육운동의 지도자였다. 흐룬은 카이퍼의 메시지에 그가 평생하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카이퍼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교육에는 국가적

으로 만났다. 그 만남이 화란 개혁 교회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생동안 두 분의 멘토가 있었는데, 한분은 요한 칼빈이고 다른 한분은 흐룬 반 프린스터였다.

카이퍼는 후일 회고하기를 "1869년 5월8일 우트레흐트중앙교회 당회실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저녁에 내가 처음으로 만난 그 사람은 강렬한 시선으로 열성적이며 건실한 말로 단 한 번에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매우 강하게 인상을 남겨서 나는 영적인 동료, 아니 그의 신앙적인 아들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물론 카이퍼는 흐룬의 후계자가 되었고 9월 1일 카이퍼는 반혁명당(the Anti-Revolutionary party)의 당수가 되었다.

같은 해에 카이퍼는 기독교 언론계에 투신한다. 잡지 Heralut는 종교와 정치를 함께 다루던 잡지인데 카이퍼를 협동 편집인으로 임명했다. 원래가 글쓰기를 좋아하던 카이퍼로서는 자기의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후 카이퍼는 장장 50년간을 펜을 놓지 않고 교회, 신학, 정치, 문화, 교육, 예술 등 현란한 필치로 국민을 칼빈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깨우는 일을 했다.

카이퍼는 언론의 총지휘관 옹호자이자 언론의 힘의 위력을 알았다. 카이퍼 목사는 우트레흐트교회를 3년간 목회하면서 실로 많은 일을 했다. 그는 교정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언론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1870년 2월12일 암스테르담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는다.

< skc0727@yahoo.com >

1867,8

우트레흐트중앙교회의 부임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교회의 생활원리"(De menswording Gods : het levensbeginsel der kerk)란 제목이었다. 아직도 완벽한 정통 칼빈주의자의 설교는 아니었지만 국가교회는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카이퍼는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성령께서 계시하신 교회건설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그것은 순수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 교회의 정통신앙을 가진 개혁

파는 베이스트교회에서 목회 하던 대로 당회운영, 강의 등 바쁜 나날을 보내었다. 카이퍼는 더 이상 시골교회 목사가 아니라 대도시 중앙교회 담임목사로서 그에게 맡겨진 책임과 소명이 대단했다.

그런데 카이퍼는 천부적으로 문필가요 설교가요 연설가였는지,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국가의 정책에 대한 긴급 제안이 있을 때마다 소책자 또는 팸플릿을 만들어냈다. 마치 칼빈이 당시에 신

에 노회와 총회에 선거연풍이 불었다. 모든 대표들이 현실의 안주에 빠져 교회 간부들 중에는 현대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카이퍼는 제직회, 노회, 총회 등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물갈이를 했다.

카이퍼 목사는 총회를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기관에 정통주의자들이 장악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카이퍼가 칼빈주의 사상을 체계화 한 것도 교회와 세상의 변화는 단순히

phobia)을 가졌고, 카이퍼를 총회에 벌집 쑺시는 듯 한다고 해서 방화범(firebrand)이라고 비꼬았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고 선전 포고를 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서 그들조차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적인 칼빈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세계관의 부흥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

카이퍼가 우트레흐트교회 재임 시 국가적 이슈 가운데 하나는 교

특성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부모의 자율권을 정부가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흐룬은 카이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전에 카이퍼와 흐룬은 서로가 서신으로는 교환이 있었으나, 흐룬이 카이퍼의 그 웅장하고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듣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집회를 마치고 당회실에서 67세의 흐룬과 31세의 카이퍼 목사가 감격적

가정사역 칼럼



성화를 위한 결혼

(FBM )



얼마전 한국을 다녀오며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또한 결혼하지 않는 추세에 대해 부모들은 물론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또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묻곤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의 결혼생활이 그렇게 본받고 싶은 경우가 아닐 때, 이러한 의문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실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혼은 여성의 허영과 자기중심주의를 마취 없이 뽑아내는 수술이다"라고 Helen Rowland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성에게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성숙함으로 이끌어 그리

스도의 형상을 닮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이나 부부관계는 신학적, 영적으로 중요한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글이나 가르침에서 나오는 영성은 기본적으로 독신자나 수도사의 것이었습니다. 교황 시리시우스(Siricius, A.D. 384-398)는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나 결혼한 성직자 모두에게 성적관계를

금지하면서 독신생활을 성직자의 필수요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캐더린(Katherine)과 결혼하면서 그러한 전통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로랜드 바인톤(Roland Bainton)은 감동적인 루터 전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정과 종교개혁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루터의 영향력은 추종자들의 가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종교개혁이 사실상 가장 깊숙이 영향을 끼친 유일한 삶의 터전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경제는 자본주의로, 정치는 전제주의로 변했지만 가정은 루터가 그의 가정에서 이루어 놓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생활양식을 따랐던 것이다" 그때부터 마틴과 캐서린은 연합의 본보기가 되어 성경적 신앙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풍요로

울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세계 만방에 알린 셈입니다.

결혼을 통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하루 24시간을 감시(?) 속에 있으니 '휴식'도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빌릴 때도... 식욕, 탐욕, 열망 등의 세속적인 모습을 배우자의 눈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감수하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타락이 가장 잘 노출되며 우리의 존엄이 가장 훌륭하게 지탱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한 인내라는 영적훈련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결혼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막아야 합니다. 싸워야 하고 고백해야 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배우자에게

노출시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배우자도 내게 그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취약한 부분들을 용납 받고 회복되며 보다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혼생활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서 마침내 아름다움과 신뢰와 상호협력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성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감정적인 만족이나 낭만을 느끼는 데서 결혼의 주된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 milykum@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 2013년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 창조과학 탐구



## 164. 창조의 기본(15) - 창조를 지지하는 탄소 연대측정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지구 연대가 성경과 달라 성경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쉽게도 별로 없다. 성경에는 6000여 년의 시간만 있는데 세상에서는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 역사,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와 수백억년의 우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 둘 다 사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과학자들이 말해주는 연대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산산 조각나게 하는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다.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들 중에 특별한 원소가 있는데 바로 탄소다. 탄소(carbon)는 무기물 속에는 거의 없지만 생명체 속에는 가장 흔한 원소들 중 하나다. 실제로 생명체의 뼈대는 탄소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체의 연대를 측정할 때 탄소 동위원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탄소동위원소란 방사성탄소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탄소와 화학적 성질이 같아 일반탄소와 구별 없이 생명체에 사용되지만 무게가 다르고 방사능이 있다).

많은 경우 그 탄소 연대측정 결과들은 수만 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지구역사는 수천 년임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란 의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다. 오히려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들은 창조론의 포기가 아니라 진화론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탄소연대측정법의 원리는 병속에 든 향수와 같은 원리다. 향수병을 계속 열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가 점점 사라진다. 이때 처음 향수의 양과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속도를 알면 얼마동안 향수병을 열어 놓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향수병의 뚜껑을 열기 전 향수의 양을 모르면 열어놓는 속도와 현재 남아 있는 양을 아무리 정확히 측정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열어두었는지 계산할 방법이 없다.

탄소연대측정법도 정확히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맨 처음에 방사성탄소의 양을 측정할

않는 방법이란 뜻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약화되는 것과 비례해서 우주선이 지구에 더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방사성탄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탄소연대측정법은 연대측정에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하지만 탄소연대측정법이 정확한 연대를 얻을 수 없지만 최대한의 가능해보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현재의 방사성 탄소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값의 한계가 이론상으로 10만년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만년보다 더 오래된 생명체 속에는 방사성탄소가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나무, 천, 씨앗, 화석, 석탄, 석유 등의 유기물과 탄소가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등이 10만년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그 물질 속에는 방사성탄소가 남아있을 수 없다. 만약 이 물질들에서 방사성탄소가 검출된다면 이 물질들은 10만년이 되지 않은 것이다.

탄소연대측정 결과들은 정직한 세상 과학자들에게 진화론을 포기해야만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방사성탄소 측정결과들은 지구에서 진화역사가 없었다는 사

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진화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한계가 최대 10만년이므로 수억 년의 고생대, 중생대, 수천만 년의 신생대 시료들은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색한 변명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한다(실제로는 다 알고 있지만 발표를 하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이 진정으로 과학을 한다면, 그리고 과학적 과정을 따른다면, 그 시료들을 측정해서 방사성탄소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측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까? 진화론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탄소연대측정결과가 성경의 지구역사 6000년보다 길게 수만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에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기 때문에 내린 잘못된 결론이다. 앞에서 탄소연대측정원리를 소개했듯이 그리고 방사성탄소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시료들이 매몰될 당시 방사성탄소 비율이 낮아서 오래된 것으로 계산된 것이지 실제로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때 묻힌 석탄들과 화석들은 4350여년 전이지만 50,000년 이

내로 나오고, 빙하시대 이후 화석들은 노아홍수 이후 것이므로 더 젊은 연대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또 20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는 다이아몬드는 55,000년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6000여년 전 창조 때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다이아몬드는 에덴동산에도 있었다).

노아홍수 때 매몰된 생명체 속에서 방사성탄소의 양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그만큼 지구환경이 좋았다는 증거다. 지구 자기장 감소 추세나 당시 지상에 있었던 탄소의 양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구 자기장이 있어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광선들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석탄의 방사성탄소 비율이 현재보다 200배 정도 낮았던 이유이고, 그만큼 좋은 환경이었으며,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10배 정도 오래 살았던 것이다. 처음이 좋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방사성탄소측정법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mailforwschoi@gmail.com

# 성품관람



올해로 112번째를 맞은 노벨상 시상식에서도 수상자 12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으로 드러나면서 세계는 또다시 그들의 교육문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에 이른다. '톰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를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1899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통계적으로 지구상의 유대인 수는 인류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마치 은하수 끝자락에 흩어진 희미한 먼지와도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맞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또렷이 들린다. 유대인은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며 세계 속에 우뚝 솟아있고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문학, 과학, 예술, 음악, 금융, 의학 등 고도의 지적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끼친 기여는 상당하다...(중략) 이 불멸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공비결을 명석한 두뇌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국에 엘스태터대학 리처드린 교수와 핀란드의 헬싱키대학 타투 반하네 교수가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IQ)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국민의 평균 지능은 여러 국가 중 45위에 그친다. 뛰어난 지능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작은 민족을 거대한 나라로 만들었을까? 비밀은 그들이 강조하는 교육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유대인들은 진리에 뿌리를 둔 '삶의 기준'을 대물림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AD70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디토 장군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유대의 모든 건물들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건물 하나만은 부수지 않을 테니 어느 건물을 원하든지 말하라"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을 말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아닌 도서관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서관에는 성경과 여러 권의 탈무드가 있었다.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준과 정체성을 가르치고자 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장 넓은 세계를 떠돌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을 따라 해결해왔다.

둘째 유대인들은 '남과 다른' 창의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유대의 속담에는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의견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남보다 뛰어난게'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치며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해 준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유대인 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좋은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상상하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칭찬하며 격려한다.

셋째, 유대인들은 '관계'를 통한 교육을 강조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과 탈무드 토라를 주제로 끊임없이 대화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기관인 '예시바'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유명한데 예시바의 책상은 둘 이상이 서로 마주보도록 놓여 있어 그 누구도 혼자 공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혼자 조용히 지식을 나만의 것으로 축적하는 것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시바에서 책상 위에 책을 쌓아놓고 여러 사람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관계 속에서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통해 배움을 확장시킨다. 유대인의 교육문화에 주목하고 우리의 교육문화를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창의성의 성품'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교육, 다음을 인정하는 교육, 관계를 통해 소통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입시와 취직을 위한 교육에만 함몰되어 정작 개인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는 우리교육 풍토로는 현재 교육이 대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 미래 인제는 명확한 삶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더 좋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관계를 맺는 '좋은 성품'에 달려있다. 이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할 때이다.

측정 시료	진화론 연대(년)	계산 연대(년)
몬타나 주의 Hell Creek 지층 오리주둥이 공룡 뼈	6800만	20,850
캘리포니아 초기 백악기 지층 암모나이트 화석 나무 화석	1억2000만	42,555(평균) 37,585(평균)
미국 줄도 석탄 10 시료	4000만-3억1100만	49,000(평균)
다이아몬드	20억	55,000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들은 지구에서 진화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없고 알 방법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지 않은 가정(믿음)이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도 지금과 똑같은 양의 방사성탄소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니면 탄소연대측정 결과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관찰하기로 는 방사성 탄소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적었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탄소연대측정법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처음 상태에 대한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탄소연대측정법은 연대측정에 사용할 수

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에 소개된 예들을 보면, 진화론적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하는 수억-수천만 년이 모두 6만 년 이내로 측정된다. 진화론이 필요로 하고 주장하는 수억 년의 역사는 발붙일 수가 없다. 석탄이나 석유나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물체들은 방사성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는 10만년이 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은 진화를 생각할 수도 없는 짧은 시간이다.

진화론자들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거부함으로써 과학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6(Fri) ~ 19(Mon), 2014  
2) Place: Toronto, Canada
-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Luke 16:19-26  
(2) N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3)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4)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3) n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희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 4 (無)



(주사랑선교회 담임)

현대교회가 명예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물질가능주의로 점점 세속화되어가면서 교단, 교파, 개교 회마다 주도권의 문제로 싸우고 분열되고 있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은 교회의 4무(無), 즉 교회가 가져야 할 4가지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교회는 어떤 것이며, 교회를 누가 세웠고,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지각과 무관심이 교회문제 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본다. 바른 교회관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사랑의 공동체이다. 교회를 세우신 이, 설립자가 예수님(마16:18)이시고, 교회의 머리, 몸도 예수님이시다(엡1:22, 4:12, 골

1:18).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라고 부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전12:27)들이다. 교회의 존재와 설립의 목적은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다. 이 같은 분명한 바른 교회관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질 때, 모든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2. 가 교회는 안락과 같은 세상을 밝히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공의와 정직과 선행으로 본을 보이며, 교회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변화시켜나 가야 되는 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교회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4대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 (1)'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 (2)'천국만 소망하며 삽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 (3)'주님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4)'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이다. 이 같은 형식, 위선, 가식, 외식의 이중인격적인 종교행위의 탈을 과감히 벗어야 한다.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는 물러가게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교회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사라지고 만다.

3. 가 교회는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보면, 복음은 다 알고 있다고 생

각하고, 복음은 교리적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복음의 감격이 메말랐고 복음의 순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세계적 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들이 '예수결핍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 즉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에 두는 마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음의 변질을 질타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에는 화려한 교회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재미있는 행사와 이벤트도 없었지만 예수와 복음에 감격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순수한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의 문제는 없다.

4. 현대사회를 사랑이 없는 비정하고 무정하고 매정하고 불인정한 사회라고들 말한다. 성경에서도 말씀

의 징조 중 하나로 '사랑이 식어진 다'고 예언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이 풍성해야 할 교회는 사랑은커녕 혐기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찬 싸움판이 되고 말았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무조건적, 희생적,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오셨고, 사랑의 구체적 표현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주제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13:8) 했다. 주님이 베풀어주시지 않는 사랑에 빛진 자로서, 빛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 KWMC 26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26차 전국 연합총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정을 마쳤다.

프라미스코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진행된 이번 연합총회에서는 새 대표회장으로 김남수 목사를 선임했다. 또 총회는 업무 해결 외에 각 지역 선교사들이 참석해 선교도전과 세계 선교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각종 특강들이 진행됐다.

첫날 저녁 개회예배에서는 장영춘 목사(공동중앙, 퀸즈장로교회 원로)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19-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성령 충만, 사랑, 겸손 등 선교사의 필수 덕목을 전했다.

장 목사는 특히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 한국의 지위가 올해 7번째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총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총회 이틀째에는 18개 KWMC 기구들이 특강식으로 보고했다. 특히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는 지난 시카고 대회에서 함께 개최했던 GKYM(세계한인청년축제) 후원 결의를 호소했다.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는 북미 등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대표하고 있으며 4년에 한번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의 선교를 대표하는 기관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역시 4년마다 선교대회를 열고 있으며 KWMC 선



교대회 중간에 열린다. 또한 파송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KWMF(한인 세계선교사회)는 KWMC 선교대회와 같이 4년에 한번 세계선교대회를 열어 중간 시기에 지역 선교대회와 선교전략회의들을 열고 있다. 내년 6-7월에는 KWMA가 주최하는 세계선교대회(RCOWE2014)가 한국에서 열린다.

지난 회기에 KWMC는 KWMF를 후원했으며 1만5천여 명 선교사 자녀들을 대표하는 WMK(세계선교사 자녀협의회) 사역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고 사무총장은 북미주한인선교총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참석자들에게 선교사 파송상황을 요청했으며 KWMC의 30년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 총회를 호스틴한 프라

미스코회 김남수 목사가 대표의장에 취임했다. 또 신임 중앙위원 의장에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 실행위원회 위원장에 김혜택 목사(뉴욕 충신교회)가 취임했다. KWMC는 현재 이승중, 임현수, 이상진, 김남수, 배현찬, 김혜택, 서삼정, 나광삼, 호성기, 장영춘, 한기홍 목사 등이 의장단을 맡고 있으며 의장단에서 3명씩 돌아가면서 대표의장, 중앙의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신 부의장과 중앙위원은 매년 추가돼 조직이 확장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수입 213,287달러, 지출 160,000달러의 2014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 27차 총회는 12월 초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린다.

# 가 가

가 가 5 가 가

장애우사랑선교회(담임 장노혜미야 공선교사)와 함께 하는 감사 찬양 음악회 라코마챔버콰이어(지휘 윤임상, 반주 황소명/윤국형)가 10일 오후 5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LAKMA(Los Angeles Korean American Musician' Association Present) 최승호 이사

장의 인사말과 정한식목사의 말씀으로 막을 올린 이날 음악회는

LAKMA의 환상적인 음율로 '거룩한 주', '주 하나님', '시편 150편' 등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축축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정한식 목사는 마태복음 1: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며 "삶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했다. 이날 음악회는 장애우와 상처 입은 이웃을 섬기는 신앙공동체 장애우 사랑선교회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 7

올림픽선교합창단(총지휘 이우진) 제 7회 정기 연주회가 10일 오후 6시 30분 워싱턴연합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손영혜, 김영진 씨의 사회로 시작돼 황은영 목사 기도, 양국 국가 입장, 양국 국가제창과 조시영 대회장의 대회사로 진행됐다. 이어 단에

합창단원들은 오프닝송으로 '동요 메들리', '사랑으로', '산타루치아' 등

을 선사했으며 중창과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을밤을 수놓았다.

이날 특별순서로 Dios International Missionary Church 성도들이 나와 찬양했으며 어린이가 함께 출연해 한국동요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번 연주회를 통해 올림피아 경찰 청소년미사관생도 프로그램 운영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목사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 LA 가

LA 은혜교회(담임 최요셉 목사) 제 1회 성가 합창 페스티벌이 지난 27일 오후 6시 은혜가운데 막을 올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하모니라는 주제 아래 열린 성가 합창제는 김희철 목사와 그레이스최의 사회, 최요셉 담임목사의 인사말과 가도로 시작했다.



단에 오른 찬양단은 첫 곡으로 '감사의 찬송'과 '여호와와 나'

의 목자'를 선사했으며 이어 김태욱, 김남일, 김태호, 김승현의 남성4중창단이 '보혈의 사랑', '섬몰과 같은 보혈은'을 들려주었다. 특히 이날 출연한 바다위심팀의 아름다운 울동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으며 온 출연진들은 '주의 기도를 끝 곡으로 마무리했다.

LA 은혜교회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전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가합창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 KAM 8

KAM 코랄(Koran American Master Choral 지휘 이수정) 제 8회 정기연주회가 9일 오후 7시 케네디 포퍼밍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문정 목사(시온성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온 천하 만물 우러라', '참 아름다워라', '나의 눈

열어 주소서', '내 영혼아 주 함께 계시니' 등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어갔다. 또한 옥스퍼드 고등학교 합창단과 여성듀오 러브위스퍼가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차광일 목사(한빛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KAM 코랄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역사회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단원들의 친교와 화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창단돼 매년 연말에 연주회를 갖고 여러 단체들을 후원해 오고 있다.

# 14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기숙사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제 14회 학생음악축제(Student Music Festival)이 9일(오후 7시 30분)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Verdi Opera Highlight'라는 주제로 열렸다.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무대에 올라 'Nabucco', 'Rigoletto', 'La Traviata', 'Un ballo in Maschera', 'La Forza Del Destino', 'Don Carlo', 'Aida' 등 베르디 작품을 불렀다.

#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아	\$11.99	UP TO

FREE DELIVERY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족, 카페트, 밍크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WEC

설립 100주년을 맞은 WEC International USA가 주최하는 성경(신약) 완독성회가 오는 22일(금)과 23일(토) 필라델피아에 있는 WEC 본부에서 열린다.

문의: (215)868-8913 조혜선 선교사

뉴욕 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가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교단(church of God) 소속이거나 가입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한영 회중 공동담임 역할을 하며 미주대 ATS 인준신학교(M.Div)를 졸업한 50세 미만의 영주권 소지 등 신분이 확실한 가정교회사역원(houston.tx)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문의: (347)723-2386

라이프라인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가 주최하는 핑크기방 감사축제가 11월 28일(목) 오후 5시 본 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646)943-1007

11, 12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11월, 12월 공영일정을 발표했다. 이노비는 연말을 맞아 뉴욕일원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악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 (212)239-4438

23

NJUCA

지난 6일 뉴저지 중부에 위치한 뉴저지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아카데미(NJUCA) 교장 Robert Pupchik) 베델관에서 교직원과 전교생 그리고 참전용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Veterans Appreciation Assembly 행사가 열렸다.



NJUCA

성조기와 각 군의 깃발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입장한 후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참전용사들의 전적과 위업을 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단상위로 올라온 장학생 34명을 대표해 제임스 와스코비치 학교행정 위원장에게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NJUCA 중고등학교후원회(영문명 Friends of NJUCA)는 지금까지 총 40만 달러의 기금을 미국인 재학생과 한국 및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왔다.

5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주최하는 '생명 살리기' 연합집회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뉴욕일원에서 열렸다.

이병홍 목사는 "지난해 집회를 준비했으나 태풍 샌디로 뉴욕집회가 취소됐다. 금년에 같은 시기에 개최하게 됐다"며 국제사랑재단이 처음으로 하는 모금집회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는 그동안 아이티 최초의 한인 선교사가 설립한 △미마누엘 선교학교에 교실 3동을 건축했으며 △중국 연길지역에 병공장을 설립해 북한 어린이 구제 사업을 펼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탈북자 지원을 위한 농장지원, 산고 및 신학교 운영과 △캄보디아 농장사업과 고아원, 해브론 병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5

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세움 받는 사람들" (행13:1-3), 10일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마16:13-20)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또 10일 오후에는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13일 저녁에는 뉴욕에임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말씀을 전했다. 한편 김유수 목사는 7일 저녁에는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직장선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느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발-⑥조 1항 ①목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을 경우,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②기타 조항을 위반 시에는 선관위에서 1차 경고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재발 시, 자격 박탈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관위와 상대 후보들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③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향후 3년간 선출직에 임 후보할 수는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항 처벌절차-①후보 진영에서 특정 후보의 합의사항 위반을 발견했을 때, 선거운동 본부장은 선관위에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②후보 진영이 아닌 제3자(회원)가 특정 후보의 합의사항 위반을 발견했을 때, 선관위에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고발한다. ③선관위는 후보들의 합의사항 위반 여부를 직접 단속할 수 있으며 적법 시 처벌 심의를 할 수 있다.

성회복과 친목을 통한 목회자 화합을 촉마동기로 밝히면서 어려운 목회자 돕기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 특별선거관리위는 11일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임후보자들과 회동을 갖고 공정선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부회장 후보들은 목회자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합의서에 서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11월 17일 자정까지 임후보 소견을 밝히기 위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포함, 목회자의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공식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적으로 하는 집단함흥(5인 이상 목회자 회원에게 동시접대)이나 금품수수(회비 대납포함) 행위 ②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유언비어) 유포와 비방, 인신공격, 흑색선전 ③기타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계와 목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 ④2항 합의사항 위반 시 처

27 2

뉴저지교회(회장 김동욱 목사) 제27회 기제 2차 월례회가 지난 6일 뉴저지만나교회에서 열렸다. 또 정오부터는 각 교단 총무 목사들을 초대해 상견례를 가졌다.



...

월례회에서 각 분과별 보고가 있었다. 뉴저지교회 월별 연중행사 예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25-27일 EM사역자 영성수련회 △12월 4일 경증회장단 초청 오찬, 청소년순결학교 △2014년 1월 목회자 부부행복학교, 26일 신년하례식 △2월 호산나청소년전도대회 △3월 31일 설교클리닉 △4월 선교세미나, 20일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28-30일(라마나웃기도원) 목회자영성수련회, 기금모금골프대회 △5월 어린이 찬양제 △6

월 호산나전도대회 강사 장학일 목사 △7월 소망음악회 △8월 북미 일주일 선교대회 △9월 청소년찬양대회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총무 박근재 목사 인도로 기도 이동구 장로, 말씀 김동욱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월례회 후에는 각 교단 총무 모임을 가졌다. 김동욱 목사의 인사 후 참석자 소개가 있던 후 협조사항과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 지휘 이정진 장로)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아 리틀렉 너싱 양로원에 친양을 드리고 환자들을 위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와 솔로 2명의 듀엣이 함께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본 성가단의 12월 행사 계획은 △12월 2일(월) KCBN 후원가사

예배 찬양 △8일(주) 뉴욕목사합창단장단연주회 찬양 △17일(화) 뉴욕장로성가단 송년회 및 감사예배 (후원이사회 합동) 또 2014년 1월에 열리는 세계장애인 날 행사에 뉴저지장로성가단과 연합찬양을 하게 된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수시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단 문의는 손성대 장로(917-841-7552)에게 하면 된다.

Table with 8 columns and 10 rows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service times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Roman Catholic, Protestant, and others.

### 2013

2013자마 컨퍼런스(공동대회장 진유철 목사, 민경엽 목사, 한기홍 목사)가 8일부터 10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0일 오후 4시에 열린 마지막 날 전체 집회는 시작 전부터 집회장소인 은혜한인교회 본당입구에 청소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이번 컨퍼런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정시간보다 15분정도 늦게 본당출입문이 열리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로 달려가는 모습과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삼삼오오 모여 집회에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번컨퍼런



2013 가

스에서 바라는 산대가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누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찬양인도를 위해 초청된 가수 소향의 오프닝 무대에서는 객석에서 그를 담으려고 휴대폰카메라

로 녹화를 하기도 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스티븐정 목사(앨버타리바 이별처치 담임)와 김준근 장로(자마대표)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되기에 충분했다.

한편 자마컨퍼런스는 대회전날 열린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영어권 전체집회, 한어권 전체집회, 한어권청년 전체집회, 어린이 집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과 저녁에 열렸으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선택강의와 중고등부 전체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토요일 오전에 열린 한어권청년 전체집회는 300여명만이 참석해 이민한인교회의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어권청년 이탈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자마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한인교회에서 한어권 청년사역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 West

### 고역자 청빙

로고스센터(담임 김영빈 목사)은 풀타임 및 파트타임 교역자를 청빙한다. 풀타임 사역은 교육목회(프린킨더-12학년) 및 어린이사역(Pre-K to 5th grade) 담당으로 영어사용가능자이며, 파트타임 사역은 중고등부 사역 유경험자 및 영어사용가능자, 그리고 찬양사역은 평신도 사역자로 찬양사역에 열정이 있는 자다. 제출서류는 영문 이력서 1부(사진 포함), 영문신앙고백서 1부, 영문추천서(목회자 1부, 평신도 1부)를 이메일(pyb4jx@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02)737-0030

창대교회(담임 이준준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16일(토) 샌버나디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 본 교회는 매년 한 해동안 배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문의: (909)388-9240

제7차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이 한인커뮤니티와 한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증진을 위해 그 지속적인 홍보로 제 7차 종교계 지도자와 함께 하는 LA카운티정신건강국 세미나를 ' 분노 조절법'이란 주제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에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738-3446 안정영 코디네이터

트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가 교회설립 35주년을 기념해 배우 허준호 집사와 함께 하는 은혜나눔기 집회를 오는 16일(토)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626)793-0880



KCCC



가

### KCCC

#### 70년대 시작부터 2세까지...80여명 참석

미주에 흩어져 있던 CCC 출신의 나사렛 형제, 자매들이 홈커밍데이로 한자리에 모여 지난 날 지상명령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70년대부터 KCCC 미주 사역이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 이민 온 나사렛들과 1997년부터 시작된 미주 간사훈련원을 통해 배출된 1.5세, 2세 간사들에 의해 배출된 약 80여명이 참석해 서로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미주나사렛 회장인 김경수 장로를 비롯해 LA나사렛 회장 강성봉 집사 등 6, 70년대 한인 한국출신 나사렛들에게는 CCC에서의 훈련과 함께 떠오르는 김준곤 목사에 대한 추억으로 진한 향수가 묻어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 모임에서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는 KCCC USA에서 훈련받은 간사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질 만큼 놀라운 발전에 대해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미주 KCCC에서 1기로 간사 훈련을 받은 오윤태 목사의 간증과 조영민 나사렛 순장(미주출신 Young 나사렛 회장)의 간증을 통해 KCCC가 어떻게 순전한 복음 앞에 순수하게 사역해왔는지 지난 시

간들이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복음만이 목적이 되고 제자화의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했다.

KCCC는 한국출신 나사렛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박종술 간사(213-389-5222)에게 하면 된다. 또한 KCCC는 12월에 있을 Higher Calling Conference를 위해 12월 8일 후원의 밤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평신도 사역자, 교회 사역자, 예비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KCCC의 전문사역영역인 전도와 제자화 사역의 현장 전문가를 훈련하는 DMS(Discipleship & Mission School)를 개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213)389-5222(김보라, 고정진 간사)로 하면 된다. < : KCCC>

안호영 주미한국 대사가 지난 5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해 39지구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무위원장 및 오픈지카운티 한인단체장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리셉션에 앞서 안호영 대사

#### 미주주부클럽연, 올림픽경찰서 후원 일일식당 성황

미주주부클럽연합회(회장 강금자)는 올림픽경찰서 후원을 위한 일일 식당을 5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금자 회장은 "올림픽경찰서를 후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인타운의 범죄율이 줄어들게 되면서"라고 언급하며, "2개월간 티켓판매와 홍보 등으로 일일식당을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행사는 저희 주부클럽 연합회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한 것이다. 앞으로 해마다 후원 행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신연성 LA총영사와 함께 Bakersfield Jastro Park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와 참전용사들에게 메달을 증정하며 한국전 정전 60주년과 한미동맹 6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리셉션을 호스ٹ한 은혜한인교

회 한기홍 담임목사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값으로 맺어진 혈맹이며,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호관계 정진을 통해서 세계평화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자리잡혀가는 역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환영 기도를 드렸다.

회 한기홍 담임목사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값으로 맺어진 혈맹이며,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호관계 정진을 통해서 세계평화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자리잡혀가는 역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환영 기도를 드렸다.

### ABC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실시된 주 및 지방 선거에서도 전 장을 낸 한인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지속적인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등학생까지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유 후보는 목회자 남편(뉴라이프 미션처지 유성권 목사)을 내조하는 사모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무엇보다 20년 넘게 세리토스에서 게이트웨이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교육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것이 교육위원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총 3명을 뽑는 ABC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유수연 후보(사진)는 총 3천3백37표를 얻어 현 위원인 린다 존슨에 이어 2위로 교육위원 진출에 성공했다. 유수연 후보는 8세 때 이민 온 1.5세대. 현재 대학생부터

세리토스, 하와이안가든, 아테시 거에 나선 유수연 후보(사진)는 총 3천3백37표를 얻어 현 위원인 린다 존슨에 이어 2위로 교육위원 진출에 성공했다. 유수연 후보는 8세 때 이민 온 1.5세대. 현재 대학생부터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S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건물 렌트 뉴저지 린지필드파크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렌트나 매매를 합니다 - 교회도 가능합니다 - 주차장: 100대 사이즈: 11,000 SQ 토 지: 2 에이커 렌트, 매매 옵션 연락처: (646)286-9336 (Rich)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공 디스크 저가판매!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WCC

WCC 가 8

가 가 "WCC

한국교회에 열매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만하다.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라고 박 전 대사는 전했다. 부산총회는 한국교회가 손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

에서 처음으로 여성 회장(장상 목사)이 선출된 점은 한국교회의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도 큰 성과다. 하지만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 부산 총회는 한국교회의 한계와 과제를 깨닫게 해준 반면교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간 소통과 조율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비대협장 박종화 목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한국교회는 청년 지도자들이 세계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교회가 이번 총회를 함께 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채혜원 한국에큐메니칼포럼 사무국장은 "평화열차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기독교행사인데도 대통령이 불참한 것도 한국교회에 서운함으로 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중임을 허용하려는 정관계정안이 한기총 임원회에서 부결됐다.

한기총은 12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제24-9차 임원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으로 하는 정관계정안을 표결해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이 누가 될 지 교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누구도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지만 엄성형(예장 개혁신당·서울 중흥교회)목사, 김호윤(예장 합동중앙·서울 햇빛중앙교회)목사, 엄기호(기성서 예의도·경기도 광주 성령교회)목사가 하마평에 올라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두 번 지내고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엄성형 목사는 관록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엄 목사는 "

한기총 내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보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교단 추천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호윤 목사는 두 번째 도전이다. 예장 합동중앙 전 총회장인 김 목사는 최근 측근을 통해 출마의사를 나타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목사의 한 측근은 "표심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기호 목사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엄 목사는 이단·사이비 규탄 집회, 구국기도회, 노숙자·독거노인·재소자 돕기 등 사회의 낮은 곳에 사람의 빛을 밝히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왔다. 군소교단이 밀고 있는 예장 합동진리 총회장 박중선 목사와 이강원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는 내년 1월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300여명의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다.

가 ...34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박우근 목사)은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예정합선(총회장 이주형 목사) 교단과 환경단체협의회(회장 이주훈 목사)의 회원가입을 통과시

켰다. 예정피어선통합(총회장 김희신 목사)은 교회 수 확인을 전제로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의 가입교단은 34개 교단 10개 단체로 늘어났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지 130년 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140여 개국 2800여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청한 것 자체가 세계 교회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지난 열흘 동안 부산총회 현장을 지켜본 참가자들의 총평을 들어왔다.

다. 안내와 통역, 숙박과 관광에 이르기까지 서울 및 부산 지역 교회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헌신적으로 참가자들을 섬겼다. WCC 중앙위원 의장인 윌터 알트만 목사가 "한국교회의 환대가 놀라웠다"며 극찬할 정도였다.

WCC 간사 및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를 지낸 박상증(83)목사는 "이전 총회와 비교할 때 WCC 본부 측과 주최국(한국교회) 간, 아울러 주최국 교회 내부에서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2명이었던 한국교회와 WCC 중앙위원 몫이 1명으로 축소되는 등 한국교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그 예다.

주최측이 WCC 반대 세력을 아우르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백스코 주변에서 이어진 WCC 반대시위 및 집회는 한국교회의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WCC 반대 측은 폐막예배 난입과 확산기를 동반한 시위 등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하지만 4년여 준비기간 주최 측의 대화와 설득 노력에 충분히 못했다는 지적 또한 찬반 양측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박우근 목사)은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예정합선(총회장 이주형 목사) 교단과 환경단체협의회(회장 이주훈 목사)의 회원가입을 통과시

켰다. 예정피어선통합(총회장 김희신 목사)은 교회 수 확인을 전제로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의 가입교단은 34개 교단 10개 단체로 늘어났다

1903 24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는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의 성령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24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회(임용택 목사)에서 '미스바성회'를 연다. 지난 8월 감리교단 차원에서 대규모 기도집회를 열며 불을 붙인 회개 및 기도 운동을 다시 프

집게 하기 위해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미스바성회에는 경기연회 소속 750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스바성회에 앞서 오는 22일까지는 경기연회 소속 교회에서 순회 기도회를 갖는다. 첫 순회 기도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한빛교회(권준 목사)에서 열렸다. 화성과 안양, 용인 등지의 교회에서 순회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지난 9월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전 감독회장에 대해 당사무효 판결을 내린 뒤 기감은 또다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계화 경기연회 감독은 "이번 미스바성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총무협의회는 11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정준모(예장 합동개신) 목사를 선출했다. 총무협의회는 72개 회원교단과 11개 단체의 총무들의 모임이다. 5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황규철(예장 합동) 직전 회장의 사퇴로 열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정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한기총과 한국교회가 단합하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2개월여 남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정 목사는 예상 보수 권오삼 목사와 경합을 벌였으나 47표 중 27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신임 총장은 이날부터 1년 동안 안양회 장로협의회를 이끈다. 한기총 총무협의회는 교단 총무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현재는 한기총 정책과 활동,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등 한기총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미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선한목자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한마음침례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남부한인장로교회', '덴버한인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벤앨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볼티모어교회', '샬럿장로교회', '새시온침례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얼린문교회', '엘파스얼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예수교회', '큰루리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타코마새생명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템프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하와이 행복교회', '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



(가)

# W.C.C. 가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기도에서 거룩,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연합을 통한 전도와 선교는 매우 중요하다. 칼빈은 독일의 종교 개혁자들이 교제와 연합이 없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불령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우리 사이에 형제적 우애를 유지하고 보증하는 것 이상 더 관심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참화합으로 서로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다.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신앙으로 뜻을 같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참 목서들과의 연합과 우정을 유지해야 한다. ... 나로서는 이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러한 칼빈을 위대한 에큐메니칼(연합운동가)이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4권 '교회론'에서 이사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당시 성전의 극심한 부패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서 “잘못된 분열”을 경고하였다.

한국 보수 장로교회는 이점을 들어 W.C.C.를 신학으로 비판하는데, 반면 분열의 죄도 회개해야 한다. “보수는 분열”이라는 등식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연합은 1) 하나님 안에서 연합 2)성령 안에서 연합 3) 진리 안에서 연합이어야 한다.

또한 연합운동은 W.C.C.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면 일반적으로 WCC 에큐메니컬 운동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운동도 있다. 예를 들면, 화란과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도한 개혁파 에큐메니컬대회(Reformed Ecumenical Conference: REC), 미국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그리고 고신교단이 가입한 국제개혁교회대회( ) 등이다.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WCC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혁주의를 말하는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는 REC 회원교단 중 WCC 회원교단이 있고 신학 또한 좌경화되었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2.

: W.C.C.

W.C.C.의 시작과 동기는 순수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WCC의 효시다. 이 대회는 원래 윌리엄 캐러가 1792년 인도 선교사로 가면서 1810년 희망봉에서 세계적 선교대회 개최, 선교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제안했다. 구두수선궁 치고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그의 비전은 100년 후에야 실현됐다. 그러나 원래 목적과는 많이 빛나가고 말았다. “이교도의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다루기 위하여 모인 1910년의 대회(국제선교대회, IMC)는 불행히도 1948년 WCC로 발전한다.

대회는 비기독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으로 비기독교 종교를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 운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교가 ‘정치 선교’로 발전해 해외선교를 사라지게 만들고 말았다. 김활란 박사는 58년 IMC가 WCC와 합하면 선교는 사라지고 만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불행히도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한 서구 신학자는 에큐메니컬의 선교를 “에큐메니컬 정치선교(Ecumenical Political Mission)”로 정의했다.

가?

WCC는 지금도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운동에 중요한 경종을 울린다. 첫째 선교를 위한 연합운동으로 시작된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풀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 아서 글라서가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불안한 정통에서 시작됐다. 주도자들은 주로 초교파 선교회, 평신도, 진보적 학생선교운동단체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통교리에 큰 관심이 없었다. 현재 복음주의 선교운동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폭이 넓은 신학, 초교파 선교운동, 평신도 주도의 탈(脫)성경적, 탈(脫)교회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내부자 운동(Insiders Movement)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1) 가 W.C.C.

WCC는 첫 총회부터 진보적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주도했다. WCC 첫 총회인 암스테르담 대회는 기독교적 노동운동가이자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를 강사로 초청했다. 그러나 화란 정부는 처음에 그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화란정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본 셈이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운동가인 동시에 신학자였다. 노동 운동의 분산이자 자동차의 매카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세계적으로 첫 파산도시가 되고 말았다.

2)W.C.C. ?

복음주의 선교대회에 주 관심은 선교와 세계복음화다. W.C.C.도 이 주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존 스타트의 영향이 컸다. 그는 로잔대회 이후 복음주의운동과 W.C.C.의 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WCC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지상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정치-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기독교와 서양의 합리주의를 혼합한 신학으로 정의한다. 합리주의와 결합한 첫 신학이 성경비평주의다. 정통적

성경관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혁명가, 해방운동가로 재해석한다. 합리주의로 재해석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지배한다. 그래서 개인의 죄보다는 사회 구조악을 더 강조한다. 암스테르담 대회는 공산주의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동시에 지적한다.

한국교회의 친 WCC주의자들은 최근 성명서나 회의에서 WCC는 결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신학, 세속주의 신학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WCC는 그동안 발표된 WCC 성명서나 신학선언문을 정중하게 소개하기 바란다. 물론 WCC에서 발표된 신학선언서나 내용을 회원교회나 신자들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즉 신학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회원교회 목사들을 모두 신(新)신학이나 자유주의로 정죄해서는 안된다.

사실 회원 교단에는 복음주의 신자나 복음주의 목회자가 더 많다고 본다. 그 안에서도 신학적 논쟁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의 성명이나 신학 선언문들이 전 세계 교회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요 회원 교단 신학교는 대체로 WCC신학을 추종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3)

“

그간 WCC가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인권탄압, 독재, 부정부패, 사회정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성명은 발표해왔지만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 침묵하거나 매우 함축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한국, 대만, 브라질이 이러한 사안의 최대 피해국이다. 당시 이들 세 나라는 WCC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한국은 경고장까지 받았다. 물론 김일성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1961년 뉴델리대회 때 러시아정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후 WCC 내에서 공산권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다루자 이에 대해 정교회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다. 타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박해도 마찬가지로 정교대회의 신학은 다른 종교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왔다. 뉴델리대회 이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종교다화 연구소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의 세미나에서는 타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반면 기독교는 타종교를 비판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한국의 좌파들이 한국사회의 독재, 사회정의, 억압은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은 독재,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을 윤리적중의 이중 잣대라고 말한다. 인권, 정의도 문화에 따라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영어로는 이것을 cultural determinism이라고 부른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이러한 식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한국의 인권은 중요하다는 차별주의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관이다.

WCC는 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평화의 신학으로 남북화해를 주선하는데 주력. 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다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을 촉구했다. 이것 역시 남북화해 모두에게 분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분열의 이념적, 신학적, 윤리적 문제를 전혀 도외시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WCC의 탈이념주의, 탈종교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6)

“ ”

행통하다 함은 대나무의 예를 들면 그 마디마다 막힌 것이 있는데 이 막힌 것을 뚫어서 통하게 하는 것이다. 평탄이라 함은 높고 낮은 데를 볼드지도 밀어 평평하게 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

중국인이나 우리나라 젊은 분이 올 때 입춘대길 만사행통의 글귀를 대문 좌우에 써 붙임을 본다. 모든 일이 행통하기를 원한다. 어느 한 일이라도 막히지 않기를 바란다. 여호수아에게 이 행통 평탄의 비결을 말씀해 주신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지 행통하리니”(수1:7) 주신 말씀 지켜 행함의 비결이라 하신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1:3)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인 것이라 실천 중행이 성도의 본분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7:24) 말씀에 사는 일이다. 모세와 후계자로서 주신 가나안을 분배할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게도 주신 말씀이다. 허락한 복이 들어간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는 정해진 일이다 다만 그 얻을 자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돌아갈 우리 성도들도 다른 어떤 큰 공을 세우는데 있지 않다. 다만 주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져 주셨음이라. 우리는 가볍게 쉽게 말씀대로 살게 된다. 나의 하는 일에 “내가 아니요”(고전5:10)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가 다하여 주신다. 짐을 세우는데도 성을 지키는데도 여호와께서 다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땅에 우거하는 동안 세상과 싸운다. 전쟁의 일생을 가진다. 싸움에 능리가 있게 되어 있다. 패할 수도 있었을지 “하나님께서로서 난 지마라 세상을 이기는 나라”(요일5:4) 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5:4-5) 이렇게 분명한 교시가 계시다. 공자도 일어관지(一以貫之)란 말을 하였거니와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 바로 실천함에 일맥상통으로 한 가지로 다 통하게 된다 함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거기 다 따라오게 마련이다.

높고 낮은 데를 평탄케 함에 있어서도 행통, 막힌 것이 없이 통한다. 막히지 아니함이 말씀대로 살다. 그 말씀을 지켜 실천함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내 자신의 일이 아니다. 그의 은혜로 감당함이라. 높은 데를 낮춘다. 깊은 데는 메운다. 불도저를 사용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자신을 제어하는 그 힘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 그가 주심으로 받은 뿐이다. 행통하며 평탄이라. 행통에서 평탄에 이른다. 평탄에서 행통에 도달하기도 한다. 일맥상통이라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행통도 평탄도 동시에 온다. 행통으로 평탄에 도달도 평탄에서 행통에 도달도 된다.

문제는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도달함이라 “먼저 자기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더하시리라. 주실 뿐 아니라 더 다다익선으로 풍요롭게 여유 있게 주신다.

한 가지 실천으로 모든 것이 받아진다 주신다. 다윗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한 가지였다. 평생토록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사는 일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라(시27:4). 함도 쉽게 이해되어진다. 하나님 실천하여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것도 저것도 다하려 한다면 복잡하게 살다가 다 놓치고 만다. 신앙생활에는 간결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많은 것을 하려 말고 한 가지,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자.

말씀에 삶으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말씀이 기본일 뿐이다.

<1996, 1 >

<p>세계로뻗어가는 교회</p> <p><b>서부(CA)교회안내</b></p>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김영길</p> <p>www.thanksgivingchurch.com</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 진유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p>	<p><b>나성영락교회</b></p> <p>담임목사 : 김경진</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p>	<p><b>나성서부교회</b></p> <p>담임목사 : 이정현</p> <p>Tel. (323)939-7323, (F)(323)939-1656</p>	<p><b>나성제일교회</b></p> <p>담임목사 : 김광삼</p> <p>Tel. (213)388-7101, (F)(213)388-6564</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 민정엽</p> <p>Tel. (562)691-0691, (F)(562)691-0698</p>	<p><b>남가주주든한교회</b></p> <p>담임목사 : 김현인</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p>	<p><b>남가주리더교회</b></p> <p>담임목사 : 김요섭</p> <p>www.scdm.com</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권영국</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p>	<p><b>등문교회</b></p> <p>담임목사 : 이정현</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p>	<p><b>등양선교회</b></p> <p>담임목사 : 박형은</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6</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 전영자 목사</p> <p>Tel. (213)559-7728 (전화) 케스 김류, Tel. (213)210-6890</p>	<p><b>드림교회</b></p> <p>담임목사 : 이성현</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p>	<p><b>삼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신원규</p> <p>www.samsungchurcho / ysybongmail.com</p>	<p><b>새천양교회</b></p> <p>담임목사 : 변운선</p> <p>www.newpraisechurch.com / ysybongmail.com</p>	<p><b>미주영광교회</b></p> <p>담임목사 : 지용덕</p> <p>Tel. (213)380-9377, Fax (213)380-8374</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 임승진</p> <p>www.mpcia.org</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손인식</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김상덕</p> <p>Tel. (626)694-6214</p>	<p><b>브리지교회</b></p> <p>담임목사 : 장세경</p> <p>Tel. (626)339-8177</p>	<p><b>새생명선교회</b></p> <p>담임목사 : 김만수</p> <p>Tel. (818)952-2449</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 오세훈</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p>	<p><b>아카데미 은누리 소망교회</b></p> <p>담임목사 : 조모숙</p> <p>Tel. (626)533-1155</p>	<p><b>안디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지윤성</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p>	<p><b>엘만인침례교회</b></p> <p>담임목사 : 한중수</p> <p>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p>
<p><b>요셉선교회</b></p> <p>담임목사 : 정상호</p> <p>Tel. (213)245-4090</p>	<p><b>일서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 엄규서</p> <p>Tel. (213)384-4774, Fax (213)384-8638</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한기홍</p> <p>Tel. (714)446-6208, Fax (714)446-6207</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 신승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p>	<p><b>창대교회</b></p> <p>담임목사 : 이춘준</p> <p>www.gpc.com</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 이종용</p> <p>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cornestonestv.com</p>	<p><b>토렌스주요교회</b></p> <p>담임목사 : 김바울</p> <p>www.torrencecc.org</p>

# 행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7)

## 미국시의 일원으로서의 미래적 과제



오늘은 “한국의 전통적 도덕가치들로 미국대중들을 향한 도덕교육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함으로서 그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대 미국의 공교육이나 대중교육에서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도덕교육의 측면이 굉장히 약화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내 팽배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조가 근간이 된 상대주의적 의식구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의 근거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청소년 교육에서도 도덕이라는 것, 규범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잃어갔으며 인성교육은 표면적이고 명목적이 되었습니다. 가정들도 그 안에 책임감이나 도의와 같은 가치가 더 이상 존

로 하는 교육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미 종교와 대중교육의 분리가 정석적 사회통념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후세들을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길러내는 인성교육의 측면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이미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아니게 된 미국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교회들은 기독교적 진리를 도덕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이를 함양함으로 도덕교육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교회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미국대중들을 향해 기독교적 진리를 도덕의 기준으로 믿

법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그 한 예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알리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효”사상과 그 실천,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정신과 그 실천들 말입니다. 사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 진리에도 맞닿아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를 통한 도덕교육은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미국대중들에게 반감을 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도덕적 감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전문화적으로 일반적 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교회나 사서서 효와 형제우애를 다시금 강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이 도덕적 삶의 근본이었으며 다른 그

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깨어지고 파탄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어긋나 있거나 모든 가치가 깨어졌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히 우리의 교육에서 도덕교육이 점차 퇴색되면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간의 기본적인 관계맺음의 대의와 방법이 등한시 되면서, 어긋나는 청소년들과 깨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완전히 어긋나거나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더라도 늘 불안한 구성원간의 관계양상이 팽배함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인성이 형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것들이 지난 이야기에서 밝힌 개인주의를 옹호하지 않은 것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이유들이기도 하지요).

물론 미국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을 아쉽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에서와 대중교육에서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추종하고자 무단히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정의로운 관점을 온 대중에게 심어주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영향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교육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와 통찰력을 기반으

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교육을 내세우기보다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정보를 주고, 기독교진리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강조하는 교육(about-and-from)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인교회들 또한 미국사회의 도덕과 도덕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공헌할 바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도덕만을 책임지면 되니까 교회교육에서 더욱 공고히 양육하면 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에서 몸담고 살아가며 이 사회의 가치들을 습득하고 형성되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도덕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여 기독교적 진리로 세워주고 길러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열과 성을 다해 실행해야 하는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지만 동시에 미국사회 전체를 그 도덕과 도덕교육을 감당하려는 노력 또한 좌시할 수 없는 우리 한인교회들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미국교회들의 현재적 노력들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한인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헌의 지점들을 생각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

어떤 문화에서보다 강조되어 실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한국사회 또한 효와 형제우애의 면면들이 많이 희석되어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직은 불효와 형제불화가 그른 것이라는 확고한 도덕적 의식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혹 미국사회보다 혈연에 더욱 민감한 우리네 의식이 이를 가능케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폐륜에 대해서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강한 비판을 가할 줄 아는 도덕이 아직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에게도, 우리 한인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잘 배어있으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의식과 경험과 실천을 잘 알려 미국대중을 위한 도덕교육의 좋은 자료로 제공하고 그 교육 내용 또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효의식과 실천이 사회적 의식과 실천으로 확대될 때 경노의 사상과 실천으로 나아갔으며 우리의 형제우애 의식과 실천이 사회적 의식과 실천으로 확대될 때 동료, 동족에, 나아가 인류애의 의식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환기시켜 그 도덕교육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모조록 우리 한인교회가 무너져가는 미국사회의 도덕과 도덕교육을 되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

( 5:1 - 17) 179

에스겔이 보여준 또 다른 상징은 선지자가 자기 수염과 머리털을 깎은 후 셋으로 나누어 불 태우고 바람에 날림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심판입니다(2). 구원을 친히 행하신 능하신 하나님은 심판 역시 친히 이루십니다. 에스겔의 말씀사역 뒤에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전무후무한 심판이었습니다(9). 큰 사랑을 거절한 그들에

게 큰 심판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는 비극을 허락하셨습니다(10).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루어질 참사를 보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심판입니다(13 - 17). 구원처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을 엄하게 다루심으로 그 의를 만 천하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살아갑니다.

( 7:1 - 27) 178

그 심판의 두려움을 칼,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란 최상상황을 반복해서 말하는 본문은 장차 올 신약종말의 성격을 미리 말합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긍휼마저 거절하는 자는 최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한 그 사랑마저 거절한 심판이기에 마땅한 결과입니다. 둘째,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종말의 정황은 하나님을 대적해

기를 하나님 위치에 두려는 교만으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셋째, 목사가 사라집니다. 유다말기의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의 타락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종말시대의 혼란은 목사를 떠났습니다. 성경관이 혼란해진 우리 시대에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잘 통과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가 ( 7:14 - 27)

세상 종말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다말기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심판 증거가 나타났습니다(16). 바벨론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배은망덕을 징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밖에는 칼,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체가 비참한 지경이 돼버린 환경뿐 아니라 개별적인 죄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의 삶을 좋아하고 그 안에 쉬어야 함

니다. 그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사(성경)를 무시하게 됩니다(26). 그 시대의 비참은 외형적 차원을 넘어 내적 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능력의 근간인 삼중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끊어졌고 제사장에게 법이 없어지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사라지고 왕은 놀라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 8:1 - 18) 177

하나님 백성의 생명인 목사를 받은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째, 그는 불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일찍이 그날강 가에서 하늘을 통해 보여진 형상이 만물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광의 영이 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그가 본 것은 성전 벽에 새겨진 질투의 위상, 각종 곤충과 짐승 모양의 위상, 태양상 그리고 풍요의 위상, 담무스를 위해 예측하는 모습이었습

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보다 더 많은 위상을 가진 유다는 영적으로 최대의 비참에 처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포획으로 채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소한의 긍휼마저 거두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에스겔 때보다 더 심각함을 예언합니다.

( 11:1 - 13) 456

에스겔의 사역은 어떤 특징을 이뤘습니까? 첫째,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입니다(1,7).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이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동편문 앞에 모인 25명과 야아사나와 블라다의 실상을 보임으로 사역을 효과적이게 하셨습니다. 성경 앞에 정직히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6 - 7). 예루살렘 거리에 서

제가 가득 찬 모습을 보임으로서 죄의 삶이 사망이며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온 세상에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중보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13). 블라다가 죽은 후 남은 자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도고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 무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 11:14 - 25) 208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더 견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심을 언약을 이루시는 그 뜻을 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행하시는 것만이 참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참 성전이 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군신관계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언약의 목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군신, 부자 그리고 부부관계의 사랑과 복종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살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십니다. 심령의 가난상태가 새 마음의 핵심입니다(마5:3). 셋째,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영적 변화는 오직 성령이 친히 만드십니다. 그날강 가에서 본 영광의 영을 따라 주를 섬기십시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 2013 미주청년학생 겨울수련회

# THE LIFE

# HIGHER CALLING 13



**FRANCIS CHAN**  
The author of "Crazy Love"

**DAVE GIBBONS**  
Newsong Church

**JIM-BOB PARK**  
Oriental Mission Church

and **DONG WHAN KIM**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USA

## 12/26 (목)-12/29(일)

### San Diego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 REGISTER NOW

[www.gohighercalling.com](http://www.gohighercalling.com)

\$170 by NOVEMBER 11

\$190 by DECEMBER 9

\$240 on DECEMBER 26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 앞에서 사는 현장!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  
젊은이들이 진리의 말씀위에 제대로 서야 할 때입니다.  
금년 2013 Higher Calling Conference 는 진리의  
말씀위에 다음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회일정 : 2013년 12월 26일(수) - 29일(토)

대회장 : San Diego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3000명

등록방법 : [www.gohighercalling.org](http://www.gohighercalling.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Higher Calling Conference 또는 HCC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Higher Calling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Phone : 213.389.5222  
Email : [gohighercalling@gmail.com](mailto:gohighercalling@gmail.com)

명예대회장 손인식목사 송정명목사  
대표대회장 박희민 목사  
대회장 한기홍목사 고승희목사 강준민목사  
김바울목사 김지성목사 김명락목사  
노창수목사 손병렬목사 진유철목사  
박성규목사 최홍주목사 김경진목사  
박성근목사  
실무대회장 박형은목사

실행위원장 송병주목사 Sam Ko  
실행위원 권태산목사 Bobby Oh 김선익목사  
Young Lee 손경일목사 Kiwon Suh  
Jacob Cho Daniel Bang David Park  
David Song  
준비위원장 김동환 목사  
조직위원장 이성우 목사

주관 2013 HIGHERCALLING  
준비위원회  
주최 KCCC USA  
NexGen Pastors Fellowship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남가주선교협의회,  
플러션교신학대학원, KAYAC, KIMNET, KCMUSA, HYM,  
CTS, CGN, 미주복음방송, 한국일보, 중앙일보,  
크리스천헤럴드,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월드, 기독교보

#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영광 찬양 찬미 알리 알리 하라 (시 105:1)

<p>:</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 - 0991 Cell.(714)521 - 4636</p>	<p>:</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 - 4499 Fax.(323)913 - 4494</p>	<p>:</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p> <p>Tel.(323)939 - 7323 Fax.(323)939 - 1656</p>	<p>:</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 - 0691 Fax.(562)691 - 0698</p>	<p>가</p> <p>:</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 - 2779 Fax.(213)481 - 3761</p>	<p>가</p> <p>:</p> <p>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Tel. (213)215 - 8523 Fax.(213)977 - 1183</p>	<p>가</p> <p>:</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p> <p>Tel. (714)401 - 9874 Fax.(562)947 - 1760</p>
<p>가</p> <p>:</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 - 7777 Fax.(714)772 - 0777</p>	<p>:</p> <p>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Tel.(704) - 841 - 0821 Fax.(704)841 - 1625</p>	<p>:</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 - 2295 Fax.(718)762 - 4693</p>	<p>:</p> <p>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p> <p>Tel. (718)361 - 9199 Fax.(718)361 - 9433</p>	<p>:</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 - 7987 Fax.(516)883 - 1961</p>	<p>:</p> <p>45-65 162 St., Flushing, NY 11358</p> <p>Tel. (718)461 - 7835 Cell.(718)938 - 1777</p>	<p>:</p> <p>7 Jarvis Ave., Syosset, NY 11791</p> <p>Tel. (516)938 - 0383 Fax. (516)938 - 3824</p>
<p>:</p> <p>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p>Tel.(718)279 - 2757,2758 Fax.(718)279 - 1823</p>	<p>:</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 - 9194 Fax.(201)943 - 5204</p>	<p>:</p> <p>424 N. Western Ave. L.A., CA 90004</p> <p>Tel.(323)466 - 1234 Fax. (323)466 - 0816</p>	<p>가</p> <p>:</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 - 7576 Fax.(702)257 - 9191</p>	<p>가</p> <p>:</p> <p>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p> <p>Tel. (702)648 - 7994 Fax. (702)648 - 7057</p>	<p>:</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 - 2171 Fax.(718)961 - 3631</p>	<p>:</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 - 0691 Fax.(610)222 - 0692</p>
<p>:</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 - 2202 Fax(213)381 - 2535</p>	<p>:</p> <p>158 S. Western Ave. #102 L.A., CA 90004</p> <p>Tel.(213)422 - 9191</p>	<p>:</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 - 1512 Fax.(215)945 - 2095</p>	<p>:</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 - 4579 Fax.(508)435 - 5467</p>	<p>:</p> <p>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Tel.(626)339 - 6177 Fax.(626)967 - 3078</p>	<p>:</p> <p>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p> <p>Tel. (714)524 - 8800 Fax.(562)690 - 8044</p>	<p>:</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 - 0900 Fax.(704)529 - 0998</p>
<p>:</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 - 9191 (818)893 - 8607</p>	<p>:</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 - 0981 Fax.(206)524 - 1746</p>	<p>:</p> <p>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Tel. (818)249 - 2871 Fax.(818)249 - 0516</p>	<p>:</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 - 9049 (501)425 - 5178</p>	<p>:</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 - 9425 Fax.(949)857 - 9472</p>	<p>:</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 - 0288 Fax.(215)542 - 9037</p>	<p>:</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 - 1490 Fax.(915)751 - 4365</p>
<p>:</p> <p>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 - 6446, Fax.(907)344 - 3182</p>	<p>:</p> <p>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p> <p>Tel. (213)245 - 4090</p>	<p>:</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 - 6200 Fax. (714)446 - 6207</p>	<p>:</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 - 4447 Fax.(703)941 - 4448</p>	<p>:</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 - 7500 Fax.(804)560 - 7514</p>	<p>:</p> <p>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Tel. (732)310 - 0022 Fax. (732)537 - 9742</p>	<p>:</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 - 4040 Fax.(310)530 - 8400</p>
<p>:</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 - 1150 Fax.(718)672 - 1151</p>	<p>:</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 - 4040 Fax.(718)358 - 7789</p>	<p>:</p> <p>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p> <p>Tel. (213)381 - 9490 Fax.(213)385 - 9191</p>	<p>:</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 - 4738 Fax.(860)647 - 0565</p>	<p>:</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 - 1859</p>	<p>:</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 - 1103 Cell.(917)922 - 0500</p>	<p>:</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 - 5252 Fax.(808)947 - 5151</p>